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제205호 【루계 제25348호】 주체105(2016)년 7월 23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20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사계획을 청취하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동행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에게 핵공격체계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조선식화력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다양한 탄도로케트들을 개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이란의 타스님통신은 최근 북조선은 미군이 리용하는 남조선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것으로 모의한 《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모의적인 핵탄두폭발장치를 장착한 《미싸일》들의 성과적인 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지도하신 이번 훈련은 《미싸일》에 장착한 핵탄두의 폭발을 가상하여 진행된 성공적인 훈련이였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훈련이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하였으며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한번 검열하였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떼르확스통신, 데웨-로쓰통신, 쁘리모리예24통신, 신문들인 《꼼소몰스까야 쁘라우다》, 《모스꼽스끼 꼼쏘몰례쯔》, 《브즈글랴드》, 《울랴지보스또크》, 로씨야 24TV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꼬메스뽄젠뜨, 뉴스루, 롬, 레그눔, 에르베까, 인터네트TV 《미르 24》, 인터네트홈페지 《이아 울라드타임》,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국제방송망, 중국보도망, 이란의 프레스TV방송, 파르스 투데이방송, 인디아의 윤엔아이통신, 신문들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 《힌두》, ND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꾜신붕》, 《마이니찌신붕》, NHK방송,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ABC방송, 영국의 BBC방송, 에짚트의 사다엘 발라드TV방송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로씨야 연해변강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로씨야 연해변강준비위원회가 18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연해변강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그리바꼬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널리 조직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최상최대의 영광과 민족적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2015년 5월25일서한을 관철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 전성기개척의 도약대마련을 위한 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4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가지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2년 7월 20일 총련에 처음으로 축전을 보내주신 력사적인 그날의 무한한 감격과 행복을 되새기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전을 강령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지부경쟁을 비롯한 총련의 전반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갈 충정의 결의로 가슴벅차오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지부중시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총련지부일군대회앞으로 보내주신 력사적축전은 총련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유훈을 불멸의 기치로 추켜들고 오직 주체의 길, 애족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해나갈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필승의 보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전을 통하여 총련지부일군들의 애국적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재일동포들을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으로 포근히 안아주시고 주체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뜨겁게 강조하시였습니다.

력사적인 축전의 구절구절에 담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상의 믿음과 각별한 사랑을 새기면 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모든 은총을 그대로 다 베풀어주시는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애족애국하는 더없는 영예와 행복감으로 하여 높뛰는 가슴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총련지부일군대회에서 축전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지난 4년동안 해마다 새해축전을 보내주시였으며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을 비롯하여 축하문과 강령적인 말씀들을 거듭 주시여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걸음걸음 손잡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 위대한 친어버이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류례없이 엄혹하고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총련탄압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재일조선인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설계도따라 올해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만리마속도의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조국인민들과 숨결과 보폭을 같이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회에 보내주신 축전을 보다 철저히 관철해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들은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일심단결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조직과 일군들이 중앙지도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권위를 결사옹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성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일군들과 동포들을 김정일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철저히 선행함으로써 사상의 힘으로 온갖 시련을 박차고 애족애국운동을 기세차게 전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거점으로 더 잘 꾸리고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다지기 위한 지부경쟁과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16을 지향한 새 전성기 애족애국모범창조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여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말을 배우고 쓰기 위한 운동과 다채로운 문화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동포사회에 언제나 화목과 단합, 애족애국의 열기가 차넘치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애국활동의 중심에 놓고 전조직과 모든 동포들이 떨쳐일어나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며 애족애국운동의 주인인 새 세대 청년들,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 힘을 기울여 총련위업의 대를 굳게 잇고 동포군중지반을 끊임없이 넓혀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늘 동포들속에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동포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지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는 위업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일본인민들과의 대외활동을 활발히 벌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체위업과 더불어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선 재일조선인운동의 높은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축전과 5월25일서한관철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치는 력사적진군의 해로 장식하고 자애로운 원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신임에 충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백두산대국의 상징이시고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우리들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선군조선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4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참가자일동

주체105(2016)년 7월 20일 일본 도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7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대강을 받들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지족적인 애국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70돐을 맞이하고있다.

새 조선의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을 망라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창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통일전선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며 외세에 의한 국토분렬의 영구화를 막고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계기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자!》, 《민족의 태양 김정은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장은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민족대단합과 조국통일성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보고회에는 김영남동지, 김기남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들,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관계부문 일군들, 비전향장기수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가 보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를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정통이 있고 온 겨레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이 반드시 일떠서리라는 확신을 굳게 간직하였다.

보고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과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자

백두산건축연구원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백두산건축연구원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22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백두산건축연구원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원장 박광수의 보고에 이어 초급당위원장 김철만, 부소장 구신남, 연구사 오경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건축연구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연구원이 나라의 종합적인 건축연구창작기지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몸소 무어주시고 주체건축의 발전방향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오늘 이 땅에서 펼쳐지고있는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장군님의 업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백두산건축연구원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문명개화기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선 편리, 선 미학성의 원칙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건설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건축물,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리며 가꾸는 미술가, 원예사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당의 건설구상과 인민의 리상을 반영한 설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건축설계에서의 류사성과 반복을 철저히 배격하고 전장전물, 혹색전물, 령에네르기, 령탄소전물, 다기능화된 전물 등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설계수단들을 보다 현대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구사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발휘하여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건재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문명강국건설에서 맡고있는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년간계획 지표별로 빛나게 완수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326전선공장에서 지난 19일까지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 첫시작부터 기세좋게 내달려온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충정의 70일전투기간 공적속도를 더욱 높여 일생산계획을 최고 260.8%로 넘쳐 수행하면서 상반년계획을 지난 3월 20일까지 빛나게 완수하였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이들은 200일전투에 진입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또다시 련속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일생산실적을 최고 261.5%로 끌어올렸다.

계획수행기간 공장당조직에서는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내밀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은 모든 선전선동력량을 동원하여 전투원들의 사기를 한층 높여주기 위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드세차게 들이대였다. 이들은 들끓는 생산현장마다에 전투지휘소를 정하고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매일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참모부일군들은 전력케블과 절연선을 비롯한 지표별에 따르는 생산계획을 하나도 드팀없이 무조건 수행할수 있게 일전투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생산의 선후차에 따르는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이들은 매일 직장별, 작업반별, 교대별생산에서 나타난 우점과 결함을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총화를 엄격히 하고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공장일군들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기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다.

공장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뚫고나가며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첫 공정을 맡은 선재직장의 로동자들은 오늘의 전투성과여부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자각밑에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김상히, 김충진, 하유학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은 뜻밖의 원인으로 로보수가 제기되자 뜨거운 로동체안에 들어가 결사전을 벌리며 보수기일을 1/3로 줄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연신직장의 일군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과 설비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이곳 로동자들은 고속도연선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산에 지장을 주게 되자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짧은 시간에 설비를 수리하는 등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며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리정호, 유철남, 리성일, 장금석, 김명일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로력혁신자들이 배출되였다. 결과 직장에서는 매일 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케블직장과 절연직장, 전선분공장의 로동자들도 높은 생산성과로 당중앙을 옹위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맡겨진 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함으로써 오늘의 대고조진군길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현대화수준이 높은 공장, 전국의 모범공장답게 공장의 기술자들은 150mm수지압출기와 3천t연피프레스의 PLC화, 4축종합가공반제작 등 6건의 큼직한 기술혁신목표를 점령하는 뚜렷한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 일념을 지닌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드높이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매일 백수십만kWh의 전력을 증산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인 전력문제를 푸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총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수력발전부문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해 7월에 들어와 전투목표보다 매일 백수십만kWh의 전력이 더 생산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발전기의 효률을 끊임없이 높여 적은 물량을 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성과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은 모든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이미 마련되여있는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특히 이들은 변화되는 날씨조건에 맞게 과학적인 물관리체계를 세우고 설비관리운영과 정비보수를 질적으로 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면서 기술개건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위원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7월 전력생산목표를 열흘나마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을 펼치였다. 이들은 수력구조물관리를 짜고들어 물잡이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운영을 잘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전기를 꽝꽝 생산해내고있다.

대동강발전소의 로동계급도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으면서 장마철생산대책도 빈틈없이 세워 매일 많은 전력을 증산하고있다.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고 청년강국의 맹장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희천발전소의 로동계급도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천백배로 더해주고있다.

수풍발전소, 부전강발전소, 금야강군민발전소, 태천발전소의 로동계급도 발전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날에날마다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강계청년발전소, 서두수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발전기대보수전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전투에서 날에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각지 중소형발전소들에서도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오늘의 총진군에 거센 활력을 더해주고있다.

각지 수력발전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열의안고 전력생산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힘을 집중하자

위대성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혁명적수령관과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신념과 투철한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관을 억척같이 쪼아박는 사상의 정대, 마치와 같다.

5대교양에서 위대성교양은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상교양사업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을 강화하여야 모든 사회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혁명의 먼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열혈충정의 인간으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합니다.》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덕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을 특징짓는 3대풍모이다. 천만군민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 덕성의 위대성을 원리적으로 폭넓게 인식하도록 하는것은 위대성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위대성교양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사상의 위대성이다.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여 혁명의 진로를 밝히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가 높이 휘날렸기에 세계적인 정치적동란과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주체혁명위업은 승승장구할수 있었고 우리 인민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배심든든히 나아갈수 있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향도하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 비상한 견인력과 생활력으로 하여 세기와 세기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지금 인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찾고있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주의 혁명학설은 정의와 진리,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의 넋으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우리는 자주시대의 위력한 혁명의 지도사상, 세계를 밝히고 지구를 움직이며 력사를 전진시키는 지도적지침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해오신 우리 수령님들의 위대성과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는것은 위대성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수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생명선이다.

인류정치사는 이름있는 국가지도자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지만 우리 수령님들과 같은 걸출한 령도의 거장을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는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인 령도, 모든 부문,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는 다방면적인 령도이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전화위복의 령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풀어나가는 인민적령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를 생명선으로 하여 일떠서고 불패의 강국으로 솟구쳐오른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업적에는 가장 존엄높고 혁명적인 당을 건설하시고 무적필승의 혁명무력과 국가정권을 건설하신 업적,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업적,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신 업적을 비롯하여 조국건설의 모든 고귀한 재부들이 다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그 어느 단위에 가시여서도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들을 돌아보시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시고 수령님들께서 뿌려놓으신 강성번영의 씨앗들이 풍만한 열매를 맺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념원이 빛나게 실현된 천하제일강국이 일떠서게 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현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천만대중의 정신력이 폭발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대비약적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없이 고결한 인민적풍모를 심장깊이 새기도록 하는것은 위대성교양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의 인덕은 만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뜨거운 믿음이며 사랑이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비범한 예지와 령도력뿐아니라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고매한 인덕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있어서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였으며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은 원쑤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백두산호랑이, 천출명장이시였지만 인민들앞에서는 더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어버이이시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허물없는 친구, 웅심깊은 아버지, 다심한 학부형이 되기도 하시고 기름묻은 로동자의 손도 잡아주시고 밭머리에서 농민들과 다정히 이야기도 나누신분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시였다. 혁명을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 위업으로 간주하시고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천만자식을 품에 안아 정을 다해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맵짠 눈보라와 비바람도, 하늘길과 바다길, 험한 령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신다. 한없이 소탈하고 겸허하시며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분, 만민에게 따사롭고 자애에 넘친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시는분,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들으실 때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시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세기와 세대를 이어 백승을 떨쳐나가고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늘의 200일전투에서 불타는 충정과 영웅적위훈의 자욱을 새겨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김 철 학

=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

기사독보가 일으킨 생산혁신

천내리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장 김광철동무의 독보가 끝났다. 하지만 모임에 참가한 공장일군들은 누구도 일어설념을 못하였다. 당보에 실린 기사의 내용이 그들에게 준 감흥이 너무도 컸던것이다.

이때 기사장 류승철동무가 벌떡 일어섰다.

《로동당시대의 불사조인 리정규영웅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있습니까? 당을 따르는 신념이 투철할 때만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다는것입니다. 우리모두 리정규영웅의 모범을 본받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보다 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갑시다!》

련이어 일어나 터치는 일군들의 목소리도 뜨거웠다.

모임장소의 열파는 그대로 생산현장들에로 퍼져갔다.

모든 직장들에서 기사 《로동당시대의 불사조》에 대한 독보가 일제히 진행되고 리정규영웅처럼 드놀지 않는 혁명신념을 지니고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설 결의들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또 하나의 위력한 신념교양과정이였다.

그날 세멘트생산이 150%이상 뛰여오른것은 우연치 않다.

결국 하나의 기사가 거세찬 비약의 열풍을 안아온셈이였다.

허 일 무

실효가 큰 이야기모임

얼마전 구성시계급교양관 일군들은 남정고급중학교에서 이야기모임을 조직하였다.

출연자는 새날동 24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강룡묵로인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구성인민학교(당시) 교원이였던 그는 미제의 몸서리치는 살인만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였다.

《지금도 미제가 우리 구성땅에 대한 첫 폭격을 감행한 1950년 6월 28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학교건물이 무너지면서 졸지에 목숨을 잃은 12살난 김용아학생을 부둥켜안고 목놓아울던 일이 생생하고 팔이 잘리우고 기둥에 깔리운채 엄마를 부르고 선생님을 찾던 아이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귀전에 쟁쟁합니다.》

강룡묵로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야수들은 철부지아이들을 겨냥한 폭탄까지 사용하였다.

언제인가 손전지처럼 길게 생긴 《놀이감》이 아이들의 눈에 띄였다. 《놀이감》의 앞부분에는 프로펠러가 달려있었는데 태엽을 감으니 그것이 비행기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아이들은 너무도 신기하여 《놀이감》을 따라 뱅뱅 돌며 좋아라 손벽을 쳤다. 이때 요란한 폭음이 울리였다.

한참후에야 머리를 든 홍운성은 울음을 터뜨렸다. 금방까지도 함께 뛰놀던 형과 동네아이들 8명이 모두 숨졌던것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홍운성도 그 폭탄에 의해 한쪽눈을 실명당하였다. …

장내가 숙연이였다. 철없는 아이들까지도 학살의 대상으로 삼은 미제야수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슴 불태우며 참가자들모두가 주먹을 불끈 틀어쥐였다.

목격자, 체험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의 고향땅에서 자기들과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미제살인귀들의 만행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된 그들은 앞으로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철천지원쑤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김 순 영

5대교양을 강화하여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해간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한 통 의 전 화 에 서

얼마전 우리는 성천군 온정리당위원회 일군들을 취재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리당위원장과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리당일군은 잠간 량해를 구한다고 말하더니 송수화기를 드는것이였다.

《예, 리당위원장 김용식 전화받습니다. …》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을 시종일관 존중하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아마도 웃기관에서 걸려온 전화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전화는 뜻밖에도 제1작업반 반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래사람의 말을 마지막까지 친절히 들어주면서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일군의 고상한 언어예절을 보여주는 짤막한 한통의 전화였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한통의 전화에서 일군의 품격을 알수 있었다.

당일군이 례의도덕을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니 농장에 웃사람은 아래사람을 아끼고 아래사람은 웃사람을 존경하는 고상한 미풍이 차넘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의 전투력은 언제나 강한것이다.

농장이 영농과업수행에서 앞장서 내달리는 비결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을것이다.

그러니 일군들이 례의도덕을 지키는데서 대중의 거울이 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본사기자 손 영 희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천과 결부시켜

락랑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사업에서

락랑구역당위원회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방법론있게 진행함으로써 온 구역에 애국의 열풍, 비약의 열풍이 몰아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을 현실에 발을 붙이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구역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위한 작전을 잘 짜고들었다.

주목되는것은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여기에 집중시킨것이다.

선전선동부에서는 강연강사, 학습강사들을 비롯한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였다. 대중과 늘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그들의 선전자적역할이 매우 중요했기때문이였다. 실지로 시적인 모범강사들인 락랑2동, 락랑고려약공장 학습강사들은 실천과 결부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었다.

부서에서는 교양자료를 품들여 발취하고 자기 단위에서 발휘되는 애국적소행자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계기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여나가고있는 이들의 모범을 모든 강사들이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구역안의 강연강사, 학습강사들 누구나 자료집을 품들여 만들고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교양의 실효를 높이게 되였다.

대중의 애국심을 폭발시키는데서 집중강연선전대의 역할도 중시하였다.

부부장 채옥동무는 구역안의 능력있는 통로자강연강사들과 직외강연강사들로 조직된 집중강연선전대의 강연선전활동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특징적인것은 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강연선전의 내용과 형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것이다. 강연제강에 해당 단위 종업원들의 애국적소행자료들을 반영하게 하였으며 그 형식도 강연을 위주로 하던 종전의 형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선동시, 선동극, 노래 등을 배합하여 특색있게 하도록 하였다.

산림복구전투장과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 구역안의 농촌들에서 진행한 집중강연선전활동은 대중의 애국심을 총폭발시켜 200일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가는데서 큰 실효를 거두게 되였다.

부서에서는 구역출판물보급소 보급원들의 도서해설선전을 통하여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의 도수를 한층 높이였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에서 장편소설 《아침은 빛나라》에 대한 해설선전을 일군들의 모임에서 그리고 기관, 기업소들을 순회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대한 반영이 대단하였다. CNC화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눈물겹게 추억하면서 모두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한몸 다 바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부서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속에서 발휘되는 애국적소행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선전선동수단들과 계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제때에 일반화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부부장들인 주금철, 최현철동무를 비롯한 부서일군들은 애국적소행자료들을 매주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회의때마다 통보해주었으며 학습강사의 날, 강연강사의 날, 선동원의 날 운영모임에서도 알려주어 교양사업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충정의 200일전투가 시작되면서 구역당위원회는 직관선동경연을 통이 크게 조직하였다. 200일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한 경연의 실효는 컸다. 정신이 번쩍 들게 판을 만들고 200일전투성과와 애국적소행자료들을 반영한 직관선전판들을 공장부문, 교육부문 등 부문별로 전시하여 진행한 직관선동경연은 온 구역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일어번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사상일군들의 기수적인 역할을 특별히 중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그대로 닮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도 헌신도!

이것은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고있는 부위원장 최정애, 부장 로인범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초불처럼 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려는 이들의 의지는 최근 더욱 힘있게 진행되는 당선전일군경제선동대활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몇해전에 조직된 당선전일군경제선동대의 위력을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더욱 높이 떨치기 위하여 부서일군들은 선동내용을 전반적으로 혁신하는데 달라붙었다. 부위원장, 부장, 부부장들이 직접 연출도 하고 출연도 하였다.

기량훈련도 하나의 전투였다. 맡은 일을 하면서 공연준비도 하자니 훈련은 주로 하루일이 끝난 깊은 밤에 해야 하였다.

일군들이 힘이 진할 때마다 부서책임일군은 당선전일군들은 모르는것이 없고 막히는데가 없는 팔방미인이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새겨주며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당선전일군경제선동대는 동평양화력발전소 등 구역안의 전투장들은 물론 고산과수종합농장 능력확장공사장과 려명거리건설장, 평양화장품공장현대화공사장, 시체육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역들마다에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로 만장약된 대중의 힘이 총폭발되여 전례없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두단지구도로포장공사 완성, 평양가방공장건설과 청년두단종어사업소계선공사에서 큰 전진, 전례없는 농사작황 마련…

그렇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서 현실과 결부된 옳은 방법론을 구현하고 사상일군들의 기수적인 역할을 높일 때 보다 큰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이곳 선전선동부사업은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중 대 당 세 포 회 의 에 서

김 좌 혁

1935년 6월, 우리 중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하에 로흑산전투를 진행한 후 녕안현 삼도하자부근에 주둔하고있을 때였다.

로흑산전투에서 거둔 승리로 흥분되여있던 우리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북만일대 주민들속에서 진행할 정치공작과 앞으로 수행해야 할 새로운 전투과업들이 놓여있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중대에서는 지난 기간 성과도 많이 거두었으나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이나마 결함들을 가지고있는 대원들도 있었다.

일부 당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호상간 감정이 잘 융합되지 못하고 의지적단결에 지장을 주는 표현이 간혹 나타났다.

그것은 개별적당원들의 성격과 습관, 취미 등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의견불일치와 호상간 리해의 부족에서 나타나는것들이였다.

이러한 사정은 그것이 비록 몇몇 대원들에게서 나타난것이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다른 대원들 호상간의 동지적단결에도 영향을 줄수 있었으므로 중대당세포에서는 이런 현상을 시급히 시정하기 위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중대를 찾아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는 그처럼 만나뵙기를 고대하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처럼 찾아오시는데 그이앞에 자랑스러운 성과를 내어놓기보다도 일부 대원들이 가지고있는 결함으로 하여 오히려 걱정만 끼치게 될것을 근심하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중대에 오시자마자 반드시 중대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있는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시게 될것이기때문이였다.

왕청에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15일간이나 강습을 받아본 최충회동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이는 참 명철하신분이요. 이제 회의를 지도하시는것을 한번 두고보오. 목마를 때 랭수를 마신듯 가슴이 시원해질지요.》라고 하였다.

과연 그 말은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중대에 내려오신 후 전투준비상태와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면서 중대의 생활정형을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음을 띠우시고 대원들의 인사에 답례를 하시면서 먼저 우리들이 분숙하고있는 농가들에 들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과 만나시여 건강상태와 식사조건은 어떠하며 학습은 어떻게 하고있는가고 일일이 담화하신 후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방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담화를 통하여 중대실정을 낱낱이 료해하시였으며 우리들이 무엇을 근심하고있는가를 꿰뚫어보시였다.

중대당세포회의는 이러한 가운데서 열리게 되였다.

먼저 당세포비서가 당원들의 생활정형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이의 앞에서는 꺼릴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일부 당원들사이에 맺혀졌던 이러저러한 관계를 있는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뒤이어 몇동무들이 일어섰다.

그들은 누구는 누구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생각하고있기때문에 호상간의 단합에 지장이 있고 사소한 일로 서로의 사이가 간혹 언짢게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품고있던 심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의 토론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듣고계시였다.

토론이 끝나자 좌중은 더욱 조용해지면서 저마다 이제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것인가 하고 기다리고있을 때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나는 오늘 중대당세포회의에 참가하여 동무들의 당생활정형을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

그러나 세포비서의 보고와 당원들의 토론을 들어보면 당원들속에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사소한 오해로 하여 동지들과 사상의지적으로 잘 융합되지 못하거나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발로되였습니다.

또한 일부 당원들속에서는 진심으로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이 부족한데로부터 동지들의 결함을 보고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서 그것을 제때에 고쳐주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현상들도 발로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로되게 된것은 그들이 당적수양을 쌓기 위한 노력을 잘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지난날 반《민생단》투쟁에서 나타난 좌경적편향의 반혁명적후과를 철저히 가시기 위한 투쟁을 잘하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우리들은 그이의 부드럽고 사리정연한 말씀에 끌려들어갔다.

우리는 지난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독히 그이의 넓은 포용력에 감탄하군 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으나 얼마전에 지휘관들이 전해준 왕청현 다홍왜회의나 요영구회의의 소식만 듣고도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느꼈고 혁명동지에 대한 그이의 깊은 신뢰와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극좌적으로 진행된 반《민생단》투쟁을 수습하고 종파암해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수많은 혁명동지들을 구원해내여 혁명대렬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신 견결한 원칙적립장, 혁명가적대담성에 우리는 깊이 탄복해왔었다.

이러한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하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가슴에 아로새겨 들었으며 그러니만큼 지금도 그때의 말씀내용을 나는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오늘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고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원들속에서 동지적단합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우리는 모두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성취함으로써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혁명의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방에서 모여왔고 성격도 년령도 다르지만 오직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울 불타는 결의를 안고 인민혁명군에 자원적으로 입대한 혁명가들이며 전위투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이 호상 동지적으로 굳게 단결하지 않는다면 혁명가의 본분을 다할수 없으며 조국광복의 대업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우리들모두에게 자기들이 걸어온 지난날을 더듬어보게 하였다.

참으로 우리들이 유격대에 입대하여 한자리에 모이기 전까지는 생활형편이 서로 달랐고 걸어온 경로도 각이하였다.

어떤 동무들은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왔고 어떤 동무들은 멀리 전라도, 경상도에 자기 고향을 둔 동무들도 있었다. 가정형편과 직업, 지식정도와 생활습성도 같지 않았다.

일찌기 어릴 때부터 일제와 지주의 압박때문에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국땅에 와서 자라난 동무들과 조선에서 살다가 입대한 동무들의 생활형편이 꼭 같을수는 없었다.

나도 어린시절을 중국땅에서 소작살이신세로 신음해오다가 유격대에 입대했었다.

이처럼 각이한 고장에서 모여와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한대오에 뭉친 우리는 오직 하나의 숭고한 사상과 의지로 결합되였다.

그런데 우리는 한대오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그마한 의견불일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때가 간혹 있었던것이다. 나도 초기에는 자기 개인의 의견만을 고집하면 나머지 동지적인 우의와 당원이 가져야 할 품성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당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난날의 생활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지적단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당원들속에서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지적단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속에서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에 기초하여 동지적단합을 강화하는것은 인민혁명군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모든 승리의 요인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대원들은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혁명동지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고상한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지적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며 특히 비판사업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지적단합은 혁명적조직생활과 끊임없는 비판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고화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동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것은 그들을 무원칙하게 어루만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원들이 우선 자신의 결함부터 솔직히 비판하고 고치며 또한 동지들의 결함을 고쳐주기 위하여 힘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3면으로 계속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충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온 겨레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대강을 받들고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일흔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여주신것은 외세에 의한 국토분렬의 영구화를 막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성취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계기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일찌기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온 민족이 단결하여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천명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을 묶어세워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민주조선건설과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건설에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결성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을 하나의 애국력량으로 굳게 단합시켜 새 조국건설에 불러일으키는 한편 남조선에서 미제와 친미반동세력의 국토분렬과 민족리간책동을 짓부시고 민주주의적이며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의 단합을 실현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었습니다.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이룩하신 민족단합의 숭고한 경륜과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내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주체35(1946)년 7월 22일 평양에서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를 소집하시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의 완전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떠밀고나갈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신데 따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결성을 엄숙히 선포하였으며 회의참가자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의장단의 초대 의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광범한 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인민정권수립과 제반민주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고 전조선적인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할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망국적인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이 장기화될수 있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된데 대처하여 1948년 4월 평양에서 북과 남의 각 당, 각 파, 각계인사들의 력사적회합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를 개최하시였습니다.

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민족단합의 리념에 공감된 수많은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이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용약 떨쳐나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담은 북남총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1948년 9월 9일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정권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습니다.

이것은 주권문제해결을 민족통일전선사업의 첫자리에 놓으시고 건국로선실현에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시여 1949년 6월 26일 북과 남, 해외의 7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하시고 전민족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도록 하심으로써 통일전선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무어주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체였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되던 력사의 갈피에는 통일전선사업을 맡아하는 일군들과 유명무명의 애국지사들을 육친의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업적과 헌신의 발자취도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결성된 첫 시기부터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온 겨레를 통일애국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자랑찬 투쟁과 승리의 년대기를 아로새겨왔습니다.

새조국건설시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민주기지창설과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체 조선인민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며 전후에는 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지난 수십년간의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온 겨레의 심장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리념을 깊이 새겨주고 모든 애국력량을 반미반전투쟁과 조국통일운동에로 고무추동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 통일전선단체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이룩한 모든 성과에는 민족의 대단합과 조국통일성업에 온갖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적인 로고와 세심한 손길이 깃들어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복잡다단한 내외정세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상설적인 집행기구인 서기국을 꾸려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통일전선의 정치적,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라는 심원한 사상을 천명하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한 통일방략과 방안들을 밝혀주시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도 결성해주시여 조국통일운동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지난날 《반북》, 반공의 길을 걷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거족적인 통일운동의 대하에 뛰어들었으며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게 되였습니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장구한 력사적로정에서 한생을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집대성하시여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힌 불멸의 총서로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의 통일애국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기와 년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였습니다.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통일전선사업을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전도를 좌우하는 전략적문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력량이며 통일위업실현의 근본방도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다는 탁월한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였으며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소집 50돐을 맞으며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전민족적단합을 위한 통일전선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온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애국애족의 의지와 대용단으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기본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발표하시여 6.15자주통일시대를 펼쳐주신것은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으로서 주체적통일전선운동사에 길이 빛날 특출한 공적으로 됩니다.

외세가 장장 수십년동안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온갖 반공화국대시정책과 동족리간책동에 광분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환경속에서 애국애족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일관하게 추켜드시고 온 겨레를 통일애국투쟁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온 겨레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십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민족대단결이자 통일강국이라는 사상을 천명하시고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여 온 겨레가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변함없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과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는 열화같은 애국애족의 호소는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욱 북돋아주고있습니다.

참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걸어온 지난 70년은 세계가 우러르는 희세의 정치가, 절세의 위인들을 통일단결의 중심,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여 민족대단결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이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진리성, 그 거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 영광스러운 투쟁과 전진의 력사입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일흔돐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온 겨레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민족대단합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드시여 민족대단합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계시는 백두산대국의 장대성의 상징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그 위력으로 자주통일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 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은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침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입니다.

우리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우리 당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통일전선력사가 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민족대단결의 구성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북과 남, 해외 온 겨레는 천재적지략과 걸출한 령도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마음한뜻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길에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속에 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천명하신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은 민족대단결과 통일전선운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입니다.

온 겨레는 민족분렬이 가져온 온갖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제안은 지금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현실적방안들을 모색한다면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갈수 있을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누구나 우리의 이 애국애족적인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서야 할것입니다.

외세는 민족대단결의 근본장애이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입니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외세에 빌붙어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친미매국역적들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꺾을수 없는 통일의지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을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살인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은 온 민족의 요구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극악무도한 동족대결과 친미사대매국책동에 매달릴수록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속에 가장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은 민족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체제대결, 《제도통일》망상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이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민족대단결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령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2면에서 계속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동지적단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당원들이 조선혁명의 리익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확고한 관점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기 개인보다 조직과 집단을 더 귀중히 여기며 자기자신보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먼저 생각할줄 아는 정신을 배양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로 자기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쳤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이미 끝났으나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 어떻소, 동무들의 생각은?》하고 물으시였다.

깊은 자책감에 잠긴 우리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채 앉아 있었다.

모든 동무들의 얼굴에는 희색이 환히 떠오르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 당원들의 생활에 얽혀있던 매듭을 남김없이 풀어주시였으며 모든 당원들의 가슴속깊이에 혁명사상과 자각의 씨앗을 심어주시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당원들의 호상관계, 당원과 비당원간의 관계 그리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귀중한 지침으로 되였다.

지난날 사소한 오해때문에 서로 주저하고 옹색하게 생각해오던 동무들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서로 얼싸안았다.

중대생활은 비할바없이 명랑해지고 더없이 생신한 분위기속에서 더욱 활기를 띠였다.

그후 당원들은 물론 중대안의 다른 대원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중대생활에서 발로되였던 결함들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모두가 어려운 싸움에서도 서로 돕는 진정한 혁명적동지애로 더욱 굳게 뭉치였으며 혁명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통일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그후에 계속된 어려운 북만원정의 길에서 우리가 훌륭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은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혁명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에 얻어진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하에 진행된 북만원정의 길에서 우리는 그이의 모범을 따라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민들을 감동시켰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에게 거센 투쟁의 불씨를 안겨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견결히 나서도록 할수 있었던것이다.

오늘도 그러하지만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도 전투와 행군의 여가시간에 친히 부대에 내려오시여 사업상애로와 난관을 해결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당조직들의 우결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신 기초우에서 당사업을 개선하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친히 강조하여주시였으며 대렬의 철용성같은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도록 구체적지도를 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전통에 기초하여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당사업에 구현하여 커다란 생활력이 나타나도록 이끄신 탁월한 령도에 대하여 깊은 감격속에서 생각하군 한다.

아울러 위대한 수령님의 실천적모범과 중대당세포회의에서 하신 가르치심의 구절구절들이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오르며 나는 스스로 자신의 사업과 당생활을 검토하게 된다.

(나의 사업작풍과 방법에는 결함이 없는가. 당생활정형은 어떠한가. 혁명적수양을 쌓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렇게 따져가면서 비록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빈틈을 찾아내며 거듭 새 결의를 다지군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와 실천적모범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바로 우리들을 힘있게 앞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행동의 지침인것이다.

함흥과학자지구 살림집건설 힘있게 추진

함 경 남 도 에 서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지난 4월까지 수백세대에 달하는 살림집을 일떠세운 이들은 200일전투에 진입하여 8개 호동에 3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을 2단계목표로 내세우고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19일현재 골조공사량의 50%이상을 해제끼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며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천하제일의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을 일으켜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의 곳곳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워주시면서 과학자들이 많이 살고있는 함흥시에도 과학자살림집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필요한 조치까지 다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함흥시의 과학자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하여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도안의 설계가, 건설자, 차광수청년돌격대,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함경남도도시설계연구소 설계가들은 건축물의 특성과 용도를 뚜렷하게 살릴수 있도록 외부형성과 내부설계에 품을 들여 과학자지구의 건축물양상과 건물배치를 독특하게 설계하였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대책해나가고있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건설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 있다.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현장조건에 맞게 시공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면서 시공단위들에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 있다.

함경남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아래 여러 기업소의 건설자들이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살림집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이들은 앞선 통벽취틀조립방법을 받아들여 지난 시기보다 건설속도를 거의 2배로 높이였으며 4, 5, 6호동골조공사를 립체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관리국일군들이 산하기업소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결과 함흥도시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이 지난 6월 중순에 제일먼저 4호동 2현관 골조공사를 완공하는 혁신을 창조한데 이어 4호동 1현관 골조공사를 맡은 도시건설려단 건설자들도 다른 단위보다 공사량이 많은 조건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건설전투를 벌려 지난 17일에 골조공사를 완공하였다.

부래산세멘트공장, 함흥강철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건설용자재생산을 다그쳐 과학자지구 살림집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8개 호동의 살림집골조공사를 전부 결속할 높은 목표를 내세운 건설자들은 앙양된 기세를 늦춤이 없이 건설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현지보도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을 영원히 잊지 말자

그들은 갓 입대한 병사들이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의 갈피에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조선인민군 제27려단 3대대(당시)가 《속전속결》로 월미도와 인천, 서울을 지나 압록강까지 내닫는다고 호언장담하던 미제의 공격기도를 파주와 개성에서 10여일간이나 저지시킨 전투자료가 기록되여있다. 한개 대대가 수적으로 대비도 할수 없는 적들과 10여일간 맞서싸운 위훈도 경이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그 대대가 불과 전투를 앞두고 한달전에 조직된 신입병사대대라는 사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50년대 영웅전사들은 정신력이 강하면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런 전투경험도 없는 신입병사대대.

그들이 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자기들앞에 나선 가장 어렵고 중대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은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당시 대대장이였던 한인숙전쟁로병이 남긴 수기에 그 대답이 있다.

* *

끝이 보이지 않는 적기계화종대가 먼지구름을 피우며 밀려들기 시작했다. 무력시위나 하듯 느릿느릿 굴러오는 적기계화행렬은 경기도 파주계선을 차지한 우리 대대전투원들의 심리를 얼구기에 충분했다.

나도 간담이 서늘해났다. 며칠전에 대대장이 전사하여 대리참모장으로부터 대대장으로 급작스레 승급한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고급중학교 교단에 서있던 교원이였다. 대원들속에 긴장한 낯빛으로 엎드려있는 군관들도 모두 나처럼 군사에는 초학도들이였다. 보총을 잡고있는 1 000여명의 대원들도 한달전에 황해도에서 입대한 40대의 아바이병사들이였으니 우리 대대야말로 대대장으로부터 마지막전사에 이르기까지 알뜰한 신병부대라고 말할수 있었다.

이 계선을 차지한 때로부터 우리에게 차례진 시간은 불과 사흘이였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진지굴설과 함께 중기관총 및 보병총실탄사격, 수류탄투척훈련을 동시에 내밀었다. 놈들이 쳐들어올 도로도 몇군데 끊고 함정도 파놓았다. 땅크를 짜부실 인화병도 2 000여개가량 만들었다.

아바이신입병사들은 작업도 훈련도 열성껏 했다. 그들이 낮에는 조준 및 사격훈련과 수류탄던지는 훈련을 하고 밤에는 밤대로 진지굴설작업을 하는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끌어들인 적의 방대한 무력을 과연 저지시킬수 있겠는지…

또다시 솟새여드는 불안을 가까스로 누르며 나는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놀랐다. 처음 총을 잡았을 때엔 손을 떨던 그들이 활활 타번지는 증오의 눈빛으로 적기계화종대를 노려보는것이 아닌가. 적비행기의 폭격에 온 가족을 다 잃은 1소대의 아바이병사, 장군님께서 주신 땅과 오붓하게 꾸려놓은 집살림을 뒤에 남기고 오자니 가슴이 저리더라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던 어제날 재령 나무리벌의 농민…

한없이 순박하던 그들이 덤벼드는 적의 대병력앞에서 딴 사람이 된것만 같아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끼며 나는 《쏴!》구령을 내렸다.

대대의 모든 전투원들이 이를 악물고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박격포소대원들은 적땅크를 향해 멸적의 포탄을 날리고 길옆에 매복한 땅크습격조원들도 반땅크수류탄을 연방 던졌다.

불길에 휩싸인 선두땅크가 무한궤도를 풀며 큰 팽이처럼 돌아가고 그것을 에돌려고 도로에서 내려서던 두번째 땅크는 함정에 빠졌다. 앞차를 들이받으며 멎어서는 장갑차들에 인화병들이 날아가 터졌다. 서로 떠받으며 함정으로 돌진하는 장갑차들에서 질겁한 적들이 쏟아져내려 물고인 논판으로 뛰여들었다.

결정적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는 웨쳤다.

《대대 날 따라 앞으로!》

전호우로 날아오른 나를 누군가가 다시 전호속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 귀전을 때리는 웨침, 《대대를 부탁합니다!》

2중대장이였다.

전호바닥에 쳐양 나동그라진 나의 눈가에 돌격하는 대대가 비쳐들었다. 대대가 나가고있었다. 한달전의 로동자, 농민들이, 전쟁의 첫 공포를 이겨낸 병사들이 성난 사자처럼 침략자들을 족치고있었다.

대원들에 대한 사랑, 승리의 열광이 온몸의 피를 펄펄 끓게 했다.

나는 화점안의 중기관총들을 끌어내여 길건너 높은 릉선을 차지하고 적을 답새기게 했다. 재빨리 이동한 중기관총사수들은 논뚝에 올라서는 적들에게 교차로 명사격을 들이댔다. 수많은 적들이 큰 낫에 후리운 풀대마냥 픽픽 쓰러졌다. …

첫 전투는 이렇듯 통쾌하게 끝났다.

다음번 전투에서도 대대는 수많은 적을 살상하고 직사포를 비롯한 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10월 4일 대대에 개성시 삼거리계선의 무명고지를 차지하고 적의 진공을 좌절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투명령이 하달되였다.

우리가 현지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부터 무명고지를 향해 적들의 포사격이 개시되고 적폭격기편대들이 새까맣게 날아들었다. 고지익측에 난 도로에 늘어선 땅크, 장갑차에서도 포탄과 기관총탄이 연방 날아왔다. 파주전투때와는 달리 적들은 퍽 조심스럽게 전진해왔다.

삽시에 고지는 재무지로 화한듯. 그러나 적기계화종대가 화력권내에 들자 그 재더미속에서 화산이 터진듯 중기관총화점들이 불을 토하기 시작했다. 박격포탄, 수류탄이 날아가고 보총들이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우리 대대병사들은 이미 신입병사들이 아니였다. 그들은 불과 한두차례의 전투를 통하여 한다하는 싸움군들로 자라났던것이다. 파괴된 땅크와 불붙는 장갑차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적들은 길을 꽉 메운 그것들을 끌어내느라고 대형불도젤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그 대형불도젤들도 산이 꺼지는듯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쏟아져내린 돌사태에 고스란히 묻혀버렸다.

또다시 적의 포격과 폭격, 그에 뒤따른 보병들의 파도식공격.

혈전은 하루에 10차례나 거듭되였다. 적의 시체가 고지앞을 한벌 뒤덮은 반면에 대대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나를 전호턱에서 내려놓지 말라, 나를 방탄벽삼아 평양길을 지켜달라! 병사들은 적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이렇게 웨쳤다.

죽어서도 물러나는 전호에 버티고 서서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는 성새, 방패가 되려는 불굴의 투사들을 몇푼의 딸라에 팔린 고용병들이 어찌 당할수 있었으랴.

새 전투를 앞둔 인원점검에서 나는 그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 조국의 미더운 성새, 방패였다.

늘어나는 희생자와 줄어드는 총탄을 보며 나는 적의 공격기도를 앞질러 파탄시키는 공격적인 방어를 결심했다. 여기에 불리한 정황을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주도권을 틀어쥐는 길이 있었다. 어느날 새벽 4시, 적포진지습격을 신호로 길게 늘어선 적기계화종대의 곳곳에서 폭음이 울리고 불길이 치솟았다.

새벽이면 밀려들군 하던 적들의 공격은 다음날 한낮이 되여서야 시작되였다. 시간을 빼앗긴 분풀이인듯 적들은 2시간이나 총포탄을 들부었다. 놈들의 지독한 맹포격에 물을 담아놓았던 물독들이 모두 깨졌다.

얼마후 고지를 에워싸고 이리떼같이 달려드는 적들을 쓸어눕히던 중기관총들이 물이 없어 하나둘 입을 다물었다. 살모사마냥 대가리를 쳐드는 적들, 짐승소리를 지르며 올라오는 적들을 대대전원이 보병삽을 쳐들고 맞받아나갔다.

골통이 깨지고 살점과 피가 튕겨나는 사생결단의 육박전. 피에 젖고 찢어진 군복자락을 기발처럼 날리며 성난 호랑이처럼 원쑤를 조겨대는 대대전투원들.

또 한차례의 전투가 승리적으로 끝난 후 다시 깃든 정적속에 어디서나 물을 찾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모든것이 물로 보이는 환각이 일고있었다. 땅을 파고 흙의 습기를 핥는 대원들, 휘발유도람통을 흔들며 무작정 마시려고 하는 대원들도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탄약도 식량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나는 묵묵히 전호가를 거닐었다.

(최고사령부작전도에는 우리 대대가 무명고지를 지키는것으로 올라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명령에 대한 자의적해석은 있을수 없다. 그것은 곧 배신이다.)

얼마 남지 않은 대대전원을 나는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이 부근 어디엔가 그 옛날 림꺽정이가 살던 청석골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뜻밖의 옛말에 대원들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당대의 소문난 힘장사였건만 사회의 최하층에서 벌레처럼 짓밟혀야 했던 림꺽정.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나서 나는 말했다.

《해방전 우리 운명도 같았지요. 나도 13살에 학교에서 쫓겨나 흥남제약공장에서 소년로동을 했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그렇게 하고싶던 공부를 마저 했더랬습니다. 그 은덕이 하도 고맙고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영원히 따르고싶어 19살 나는 해인 1947년에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구요.

전 지금 우린 비록 죽더라도 후대들만은 김일성장군님의 품에서 우리가 바라던 행복을 계속 누리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22살 난 총각대대장의 이야기는 안해와 자식들이 있는 아바이전사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들은 벌떡벌떡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다시 드세게 울리는 전호복구의 삽질소리, 돌을 굴려쌓는 거센 숨소리는 대원들의 심장의 화답이였다.

이날 밤 대대는 도로에 삐쭉 나온 큰 바위밑에 남아있는 30발의 박격포탄을 모두 쌓아놓고 폭발시켰다. 산이 울썩하는 폭음과 함께 바위들이 굴러내려가 또 길을 막아버렸다. 목이 말라 식량대용인 도토리를 넘길수 없었지만 전투원들은 밤마다 습격전을 벌려 적의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간고한 싸움의 나날을 이어나갔다.

10월 13일 련락군관이 철수명령을 가지고왔다. 대대는 적의 포위를 뚫고나가면서도 적들의 시간을 1분1초라도 빼앗아내기 위한 전투계획을 짰다.

그날 밤 야간기동을 하는 적의 차행렬을 향해 돌사태와 함께 불심지가 타들어가는 2개의 휘발유도람통이 굴러내렸다. 난데없는 불벼락, 돌벼락에 적들이 아우성칠 때 대대는 도로를 넘어 산으로 올랐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안전하게 보장할데 대한 최고사령부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0여일!

아마 우리 대대와 맞섰던 적들중 지금껏 살아있는자들이 있다면 그때 제놈들의 공격을 10여일이나 지연시킨 인민군병사들이 모두 신입병사들이라는 사실앞에서 기절초풍할것이다.

우리 신입병사대대가 수많은 추종국가군대까지 끌어들여 북에로의 진공을 《속전속결》하려던 미제의 간악한 기도를 파탄시키고 아군의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는데 적극 기여한 영웅적투쟁의 나날은 나의 인생에 더없는 긍지로 간직되여있다.

* *

한인숙전쟁로병의 수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영용한 신입병사대대!

그들은 청소한 우리 군대의 모습이였고 인민의 모습이였다. 22살의 애젊은 대대장이나 40대 병사들에게 비록 전투경험은 없었지만 일제에게 짓밟혔던 해방전생활과 난생처음 사람대접을 받으며 산 해방후생활의 극적인 체험이 있었고 군사복무년한은 없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행복한 인생의 년륜이 매 사람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었다. 그 남다른 체험과 숭고한 사상감정이 그들을 펄펄 나는 싸움군으로, 맹수로 되게 한것이였다.

전화의 나날 조국의 고지를 결사수호한 수많은 군관, 사관, 병사들이 바로 조선인민군 제27려단 3대대 전투원들과 같은 그런 훌륭한 《구대원》들이였다.

하기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난것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2일 조우호, 김양승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과 총련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발전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출판물보급과 도서선전활동을 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중구역출판물보급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전화의 영웅전사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렬사들의 유해 새로 안치

우리의 전쟁로병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진정한 애국자로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이 전승절을 맞이하는 내 조국땅에 끝없이 펼쳐져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쟁로병들을 영웅조선의 장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증견자들로,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속에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준공된 이후 리순임, 김완수, 한덕인, 김홍현, 함성필, 홍순묵영웅들의 유해가 새로 안치된데 이어 뜻깊은 올해의 전승절에 즈음하여 유기향, 배병숙, 김춘길렬사들이 영생의 언덕에 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쟁로병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뿐아니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백통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며 높이 내세우고있습니다.》

유기향렬사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 문등리계선방어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저격수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미제침략군 150여명을 쏘아잡은 공화국영웅이다.

그는 한생 혁명의 군복을 입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왔으며 당의 믿음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부장 겸 강사로 사업하면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전쟁로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조국보위성전에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한 배병숙, 김춘길렬사들도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영웅들이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조선로동당원으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성장한 배병숙렬사는 성천해방전투를 비롯한 30여차의 전투들에서 중대가 1 170여명의 적을 살상하고 30여대의 적땅크, 자동차들을 파괴, 로획하도록 하였으며 평양해방전투때는 시가에 제일먼저 돌입하여 건물들에 공화국기발을 게양하는데 기여하였다.

나라잃은탓에 식민지노예의 설음을 강요당해야 했던 김춘길렬사도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를 격멸소탕할 의지를 안고 금강, 락동강도하전투에서 용감히 싸웠으며 20여개의 시한폭탄과 2 700여발의 나비탄을 해제하여 전시철도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위훈을 세웠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렬사들의 믿음직한 동지가 되여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함성필, 유기향, 김춘길, 박성환, 박시률, 정동창, 리석구, 김영배, 전기철, 김병권, 고도식, 리오중, 김승호, 김창복, 김영찬렬사들의 안해들도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남편들과 함께 영생의 삶을 받아안았다.

제2의 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혁명전사들의 운명을 끝까지 맡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의 품이 있어 영웅전사들의 위훈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빛나고있음을 폐부로 느끼며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리고있다.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성황리에 진행

조선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이 각계층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계속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선군혁명의 제2의 나팔수들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민문화궁전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부사수들인 군인가족들의 고상한 정치사상적풍모를 시대정신이 높뛰는 훌륭한 작품들로 펼쳐보이는 공연은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혁명적군인문화의 자랑찬 면모를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장병들, 군인가족들,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합창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 4중창 《인민의 축원》, 설화시극 《인정의 바다》 등의 종목들에서 우리 운명의 하늘이시고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믿고 따르는 길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희세의 선군령장들의 품속에서 녀성혁명가대군으로 자라나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군인가족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펼쳐보이는 설화시극 《원수님앞에 나서거라》, 설화시극 《평양판문점초병의 안해》, 재담 《맞과 꽃》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시와 이야기 《분노의 종소리》, 시이야기 《오늘도 아기는 울고있다》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한시도 늦추지 말며 원쑤들과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모두의 가슴마다에 다시금 새겨주었다.

총창은 남편들의 부사수가 되고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여 당의 선군령도를 제일선에서 받들어나가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랑만과 희열에 넘친 보람찬 생활을 감명깊게 형상한 노래와 이야기 《우리도 만리마기수라오》, 대중창이야기 《우리의 자강력이 제일이야》 등은 관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최고사령관과 장병들, 군인가족들사이에 맺어진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을 노래하며 천만군민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혁명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피를 끓인다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중앙계급교양관 련일 참관

새로 꾸려진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참관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관된 때로부터 한달이 되여오는 지난 7월 21일현재 이곳을 찾은 참관자들의 수는 680여개 단위에 근 3만 4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미워하며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습니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사회주의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계급교양관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있는 명당자리에 새로 건설하도록 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과 관련하여 무려 수십차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설계와 형성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시형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하여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중앙계급교양관은 짧은 기간에 반제반미계급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건설되였다.

개관된 중앙계급교양관은 반미교양편, 반일교양편, 반괴뢰교양편, 반착취교양편, 반적대분자교양편, 총장으로 구성되여있으며 모두 19개의 전시실들로 되여있다.

전시실들에는 1 670여점의 사진자료와 반경화, 함상, 조각을 비롯한 100여점의 미술작품, 3 000여점의 유물 및 증거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참관자들은 미제와 일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있다.

백수십년전부터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원쑤, 오늘도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적라라하게 폭로하는 전시물들과 백년숙적 일제가 수백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식민지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앞에서 참관자들은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신성한 우리 공화국령토를 저들의 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우리 공화국의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도지사》 등을 임명해놓고 놈들의 활동을 적극 조장묵인하고있는 괴뢰역적패당을 폭로하는 자료들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룡강땅의 농민들이 세운 토지개혁기념비에 수십발의 총탄을 퍼붓고 도끼와 함마로 까비리는 죄악을 저지른 청산된 지주놈들의 만행자료를 비롯하여 남조선괴뢰들과 계급적원쑤들을 고발하는 전시물들은 온갖 원쑤들을 혁명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징벌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원쑤이고 반드시 피로써 결산하여야 할 백년숙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는 중앙계급교양관으로는 오늘도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인민군장병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참관자들은 원쑤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충정의 200일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새겨갈 맹세를 굳게 다지고있다.

신 철

에짚트특명전권대사 7월 23일혁명 64돐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에짚트에서의 7월23일혁명 64돐에 즈음하여 이만 무스타파 아브두 아흐마드 주조 에짚트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에짚트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홍철, 심국룡, 서호원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에짚트아랍공화국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에짚트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떠나갔다

리광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우리 나라에 로씨야련방정부가 기증하는 식량 도착

로씨야련방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기증하는 식량이 20일 남포항에 도착하였다.

22일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들이 식량하선과정을 보았다.

로씨야련방정부의 식량지원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4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 평양체육단, 기관차체육단, 성천강체육단, 김형직사범대학체육단, 중앙체육학원, 중구역청소년체육학교 선수들이 참가하는 예술체조경기가 진행된다.

전승컵체육경기대회 수중체조무용 1급경기가 24일부터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벌어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4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4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20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진로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길, 애족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자!》, 《총련지부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지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오민학부의장 겸 경제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총련중앙 고문들, 각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과 소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총련본부위원장들과 본부일군들, 총련지부위원장들, 조선대학교 교직원들과 조선고급학교 교장들, 간또지방의 일군들과 동포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허종만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영광을 안고 총련중앙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 결정집행에 전조직이 힘있게 떨쳐나선 들끓는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4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1(2012)년 7월 20일 새 전성기개척의 도약대마련을 위한 총련지부일군대회에 친히 축전을 보내주신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주체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결성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상 총련지부와 분회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차례의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총련지부일군대회앞으로 축전을 보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어버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부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총련의 전반사업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는 지부중시사상을 밝혀주시고 지부를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총련의 전반적인 조직체계와 사업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지부사업이 잘되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전으로 총련에 대한 위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재일조선인운동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해나가며 총련지부강화에 바쳐오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빛내여나가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리여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축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할데 대한 전략적목표와 과업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동포들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지만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이라고 하시면서 주체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첫 축전을 보내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년동안 해마다 새해축전을 안겨주시였으며 주체104(2015)년 5월 25일 총련결성 60돐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에 력사적서한과 축하문, 강령적말씀들을 거듭 주시여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걸음걸음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류례없이 엄혹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반총련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주체위업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이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높은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전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보다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축전에서 가르치신대로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사상교양사업을 철저히 선행해나갈것이다.

총련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받들어 모시고 총련의 모든 사업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벌려나갈것이다.

우리는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지기 위한 지부경쟁》을 동포사랑, 후대사랑의 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벌리며 오는 11월 6일에 진행되는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16(새 전성기 2차대회)을 향하여 새 전성기 애족애국모범창조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해나갈것이다.

총련의 각급 기관과 단체들에서는 우리 말을 배우고 쓰기 위한 운동과 다채로운 문화체육활동을 동포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 그들의 애국열의를 고조시키는 각별히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더욱 힘있게 벌릴것이다.

총련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애국활동의 중심에 놓고 진행하며 애족애국운동의 주인인 새세대 청년들,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애국위업의 대를 굳게 잇고 동포군중지반을 끊임없이 넓혀나갈것이다.

전체 총련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자신의 뼈와 살로 새기고 동포들속에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으며 동포들이 바라는 일, 동포들이 덕을 보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 동포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할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로선과 투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합세하여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것이다.

총련은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조일관계개선과 총련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할것이다.

보고자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고 오늘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신임에 티없이 맑은 충정심과 커다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해나가자

황철의 선탄공정은 이렇게 확립되였다

국가과학원 흑색광업연구소 과학자들이 들려준 이야기

지난 5월 24일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새로 일떠선 주체화, 현대화대상들에 대한 준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황철의 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일떠세운 이 자랑찬 창조물들가운데는 무연탄선탄공정도 있다. 불과 30일만에 확립한것이라는 비상한 속도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있다. 그러나 이 선탄공정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업적규모의 중현탁액무연탄선탄이라는 새로운 기술도입의 단번성공작이라는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못할것이다.

이 선탄공정확립에 크게 이바지한 주인공들을 찾아 우리는 국가과학원 흑색광업연구소로 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흑색광업연구소 과학자들이 무연탄선탄문제때문에 황철에 나간것은 지난 3월초였다.

굴지의 철의 기지는 충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낮과 밤이 없이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개건확장된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처음으로 주체철을 뽑고 승리의 보고를 올린 이곳 로동계급을 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더 많은 주체철생산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황철은 힘차게 전진하고있었다.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주체철생산이 늘어날수록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것은 석탄의 질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황철에서는 현장조건에 맞게 중현탁액선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해왔다. 이 선탄방법은 비유해서 말하면 물속에서 나무는 뜨고 쇠덩이는 가라앉으면서 갈라지듯이 정탄보다는 밀도가 크고 버럭보다는 밀도가 작은 중현탁액이라는 무거운 액체속에 석탄을 넣어서 정탄과 버럭을 갈라내는 기술이다. 이처럼 원리는 명백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하여 당시까지는 공업적규모에서 실현되지 못한 기술이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황철에서도 그 도입사업은 품을 들인것만큼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주체화, 현대화를 위하여, 선탄공정의 확립을 위하여 결어온 황철의 로동계급의 절사적인 투쟁의 자욱과 더불어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이 흘러간 현장을 돌아보며 흑색광업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 벅찬 현실에 하루라도 빨리 뒤어들지 못한 자책을 느꼈다.

사실 이들에게는 이 분야의 연구사업에서 거둔 소중한 결과가 있었다.

선탄은 석탄의 질을 높여 야금행정이나 화학공정들에서 기술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완성산물의 질을 개선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석탄수송량을 훨씬 줄이는데서도 관건적인 고리이다.

박원모동무를 비롯한 중력선광공학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현탁액무연탄선탄기술을 개발한것을 결심하고 연구소당조직과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속에 이미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시켜왔다. 마침내 1년반 남짓한 기간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김원일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황철과 같은 금속공장들에서 나오는 압연폐기물을 중현탁질로 리용하기 위한 기발한 착상을 성공시킴으로써 중현탁액무연탄선탄기술개발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그리고 새로운 중현탁액에 의한 무연탄선탄공정을 확립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하였던것이다.

자기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의 길을 되새겨볼수록 과학자들은 선탄분야에서의 하나의 혁신으로 될 이 새로운 기술도입의 길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한치한치 진격로를 열어나가고있는 황철의 로동계급의 비상하고 남다른 자력자강의 정신과 불굴의 기상앞에 머리가 숙어졌다.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짱그리 바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황철의 선탄공정확립을 단번에 성공시키자는 결심도 굳어졌다.

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과 금속공업성의 일군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산소열법용광로에 들어가는 무연탄의 회분함유량을 지금보다 15% 낮추면 석탄소비량은 20%이상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선철생산량도 크게 늘어나고 그 질이 올라가는건 두말할것 없습니다. 꼭 믿습니다.》

김원일동무는 그들에게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우리가 석탄의 회분함유량을 15%정도로 낮출수 있게 하겠으니 걱정마십시오.》

과학자들의 담찬 대답에 황철의 책임일군들은 크게 놀라면서도 너무 기뻐 그들의 손을 꽉 잡았다.

과학자들과 현장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밑에 현존토대를 최대한 리용하면서 선탄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전투가 드디여 시작되였다.

가장 품을 들인것은 공정확립에서 설계상의 요구를 정확히,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였다. 과학적착상과 연구결과는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실체로 실현된다. 지금 당장 설계에 지정된 3mm철판이 없다고 10mm철판으로 대용하거나 자재를 다루기 힘들고 조립하기 힘들어한다고 하여 설계상의 요구를 양보한다면 기술이 틀려나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선탄을 할수 없게 되는것이다.

더우기 이 무연탄선탄공정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앞으로 황철의 주체철생산을 담보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공정이라고 볼 때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수 없었다.

련합기업소지배인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믿음으로 과학자들을 떠밀어주었다.

충정의 70일전투를 황철의 들끓는 현장에서 벌리고있는 과학자들을 찾아 흑색광업연구소 소장 박사 오수남동무와 조혁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여러차례나 성의있는 지원물자를 안고 달려나왔다.

마침내 황철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진동채, 원통형중현탁액선별기, 자력선별기, 리선운반 및 농축기, 광액뽐프 등을 갖춘 무연탄선탄공정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박사 부교수 박원모동무와 김현일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생산지가 서로 다른 무연탄의 종류별, 립도별, 비중별에 따르는 회분함유량과 정탄산출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실험을 밤낮없이 진행하여 얻어낸 자료를 현장으로 보내주었다.

이 귀중한 하나하나의 자료에 기초하여 김원일, 김명선동무들은 전반적인 선탄공정의 운영지표를 잡아나갔다. 드디여 한쪽에서는 정탄이 나오고 다른쪽에서는 버럭이 나오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무연탄의 회분함유량이 12~15%나 낮아졌다. 시간당 선탄능력은 10t, 그야말로 단번성공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업적규모의 중현탁액무연탄선탄공정이 드디여 확립된것이다.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불과 30일만에 일어난 기적이였다.

황철의 선탄공정확립에 과학기술적으로 이바지한 국가과학원 흑색광업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 *

《사실 새로운 선탄기술을 연구해놓고도 어디에 제일먼저 도입할것인가를 놓고 고심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과학연구성과에 대한 첫 도입시험대상으로 나선다는것은 어느 단위에서나 결코 쉽게 결심할 일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자력자강의 정신이 투철한 황철의 로동계급은 과학기술중시기풍도 남다릅니다.

앞으로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무연탄의 회분함유량을 지금보다 2-3% 더 낮추겠습니다.》

흑색광업연구소 소장 오수남동무와 연구사 김원일동무의 이야기는 끝났다.

자력자강과 과학기술!

우리 로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정신에 우리 과학자들의 과학기술성과가 합쳐질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이 우리의 가슴속에 박차올랐다.

정녕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고조되고있는 오늘의 200일전투의 승리도 이렇게 담보되고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리명희

국산화열풍이 안아온 열매

은을 내는 동축자동수위변

국가과학원 도시경영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동축자동수위변이 도입되여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동축자동수위변은 동축상에 있는 두개의 보조구멍을 탕크의 수위에 따라 움직이는 부자로 막거나 열 때 면적이 서로 다른 두개의 작업칸에 조성되는 압력차에 따라 변을 조절하는 일종의 자동변이다.

급배수연구실 실장 박사 김용억, 연구사 리용국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현장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동축자동수위변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강관과 고무격막을 리용하여 만들수 있는 동축자동수위변은 직경이 50mm이상, 압력이 0.05MPa이상인 모든 구획뽐프장물탕크의 류입관들에 설치할수 있는것으로서 동작민감성이 높고 구조가 간단하다. 또한 제작원가가 적으며 설치를 간단하게 진행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현장들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이 동축자동수위변을 도입하면 한개의 물탕크에서 하루평균 수십m^3의 물을 절약할수 있다. 이것을 10여개의 구획뽐프장물탕크의 류입관들에 도입한 결과 한해에 수만m^3의 물을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물유리경화제의 국산화 실현

리과대학 화학부의 과학자들이 우리 식의 새로운 물유리경화제제조방법을 내놓았다.

이곳 과학자들은 주물생산의 세계적발전추세와 현대적인 주물생산공정들이 늘어나고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현대적인 조형흐름선이나 수동적인 조형작업에서 가장 널리 리용되고있는 물유리경화제를 우리 식으로 제조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였다.

그 과정에 이들은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물유리경화제제조방법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완성하고 물유리경화제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새로운 방법으로 제조한 물유리경화제는 주물품생산실천을 통하여 모든 주조공학적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뿐아니라 주형혼합물의 조형성과 모래렬기특성이 수입산 경화제보다 우월하다는것이 확증되였다.

국산화된 물유리경화제의 생산원가는 수입가격의 1/10밖에 안되며 소비량도 수입산 경화제보다 적다. 또한 생산공정과 그 운영이 단순하면서도 주물품의 생산량과 질을 높이고 생산문화도 훨씬 개선할수 있어 도입단위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실리가 큰 3중금속판생산기술 개발

국가과학원 용접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용접연구소에서 폭발용접에 의한 3중금속판생산기술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번에 우리 과학자들이 새로 확립한 이 기술은 용접할 때의 폭발압력에 의하여 종류와 두께가 서로 다른 금속판들을 동시에 붙이는 고도의 정밀성과 과학성을 요구하는 용접기술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첨단돌파의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여야 합니다.》

3중금속판은 전력공업부문에서 많이 리용되고있는 단로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금속판이다. 발전소, 변전소 등에서 리용되고있는 단로기들은 사용기간이 오래 되면 접촉불량으로 인한 많은 전력손실과 전기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있다.

용접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갈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단로기제작에 필요한 3중금속판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지난 시기에도 이곳 과학자들은 폭발용접에 의한 2중금속판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 도입함으로써 현장들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3중금속판생산기술과 관련한 연구사업에서는 그에 비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이 더 많이 제기되였다.

단로기를 제작하는데 리용되는 3중금속판은 자체의 기술적특성으로 하여 동시기폭방법을 적용하여야 만들수 있었다.

단 한번의 폭발용접으로 종류와 두께가 서로 다른 금속판들을 동시에 붙일수 있는 동시기폭방법은 불용착으로 인한 자재손실을 줄이고 많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특히 모서리부분에 대한 용접은 반드시 동시기폭방법을 적용하여야 단로기제작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만족시킬수 있었다.

용접재료연구실 연구사 배명남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이였지만 가치있는 첨단과학기술성과로 과학기술강국건설에 이바지해나가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동시기폭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동시기폭방법에서는 폭발속도, 접촉점의 이동속도, 금속판들사이의 거리 등 폭발용접정수들을 바로 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폭발용접정수들을 잘못 정하면 두 금속간의 경계에서 금속간화합물이 형성되면서 부착세기가 떨어지고 접촉전기저항이 커지게 되여 이음의 질을 높일수 없기때문이였다.

과학자들은 동시기폭방법과 관련한 수많은 과학기술자료들도 연구하였고 하나의 폭발용접정수를 선정하기 위해 실험도 수십차례나 반복하여 진행하면서 지칠줄 모르는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폭발용접정수들을 하나하나 확정하여나갔다.

소장 김홍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동시기폭방법과 관련한 많은 문헌자료들을 보장해주고 현장에서 직접 실험도 같이하면서 연구집단이 신심을 잃지 않고 분발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었다. 하여 우리의 과학자들은 끝끝내 폭발용접에 의한 3중금속판생산기술을 확립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학자들이 새롭게 확립한 3중금속판생산기술은 값비싼 유색금속을 절반이나 절약하면서도 생산원가가 매우 적은것으로 하여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크다.

전력공업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단로기들을 국산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마련됨으로써 충정의 200일전투의 척아진군에서 전력증산의 힘찬 동음을 울려나가려는 전력생산자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게 되였다.

박 현

주체철생산을 늘인 새 기술

보산제철소에서

보산제철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이미 마련되여있는 주체철생산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특히 주체철회전로에 도입한 짧은 취입관에 의한 새로운 로체송풍기술이 생산실천에서 지금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금속공업부문에서 콕스탄대신에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석탄을 가지고 철을 생산하고있는데 우리 나라 석탄을 가지고 철을 생산하는 방법을 더욱 완성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집단과 합심하여 주체철생산을 더욱 늘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어왔다.

현재 주체철을 생산하는 회전로들에서는 해당 원료, 연료조건과 로의 특성에 맞게 긴 취입관에 의한 로체송풍을 널리 도입하고있다.

로체송풍은 회전로동체에 설치한 송풍기를 리용하여 로안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말한다. 로체송풍은 회전로의 중간구간에 위치한 철광석의 환원구역에서 발생하는 CO가스를 연소시켜 그에 의한 열량까지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로의 온도균형을 보장하고 환원성을 강화하여 주체철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는 송풍을 위해 회전로중심까지 들어간 긴 취입관이 높은 온도조건과 가열된 장입물들과의 마찰 등으로 수명이 짧으며 CO가스의 연소열을 장입물이 충분히 리용할수 없는것이다.

이런데로부터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회전로내부에 취입관을 넣지 않고도 로체송풍을 할수 있는 짧은 취입관에 의한 로체송풍장치를 개발할것을 결심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였다.

이들은 주체철회전로의 환원구역에서 길이에 따르는 CO가스의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판활하고 콤퓨터모의를 진행하여 가장 효률적인 연소를 보장할수 있는 로체송풍위치와 송풍량, 짧은 취입관에 의한 송풍을 보장할수 있는 취입노즐의 형태와 구조치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여러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주체철회전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로체송풍장치의 최량구조치수와 설치위치를 확정하고 짧은 취입관에 의한 로체송풍에 가장 합리적인 로의 운영방식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전로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CO가스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으며 미분탄원단위를 10%이상 낮추면서도 로의 안정한 운영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값비싼 내열강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취입관의 수명을 종전의 수십배로 늘이고 생산성을 1.1배이상으로 높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게 되였다.

이로 하여 제철소의 주체철생산기술은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심에 넘쳐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철웅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이 《대성산》 상표를 가진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사업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박사 부교수 김창혁, 김정범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박사원생들은 이미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주었다.

그에 만족하지 않고 박사 우군, 실장 홍춘기동무와 김정석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공불입용접착제를 국산화한데 이어 탁구라켓에 쓰는 권투장갑속심발포제를 분리하는데 쓰는 리형제를 짧은 기일안에 새로 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려는 불타는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은 공장의 일군들, 기술자,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 큰걸음을 내짚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천하추물 박근혜특유의 더러운 《보신술》의 내막을 까밝혀본다

최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정세가 《신랭전》의 도가니속에 빠져들며 요동치고있다.

세계제패의 야망밑에 날강도 미국이 미본토를 벗어나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를 대국들이 밀집되여있는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에 배비하기로 하였기때문이다.

《싸드》배치결정은 세계에 커다란 의문을 던져주고있다.

그것은 남조선괴뢰들이 무엇때문에 아직 군사적성능도 확인되지 않고 탐지기전자기파의 인체유해성과 환경피해 등으로 론난이 비할바없이 큰 막심한 재앙거리인 미국의 《싸드》체계를 남조선에 서둘러 배비하기로 하였는가 하는것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가 청와대를 차지한 후 지난 3년반동안 형형색색의 특대형악재들이 감탕판에 온갖 벌레떼 성하듯 부지기수로 일어났지만 이번과 같이 남조선을 벗어나 동북아시아지역을 순식간에 패권다툼과 군비경쟁판으로 만들어놓은적은 없었다.

닥쳐올 위기와 초래할 참사에 소스라쳐 놀라 일떠선 남조선의 정계, 학계, 사회계, 재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단식, 혈서쓰기, 삭발, 초불시위 등을 벌리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박근혜는 《싸드》배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론쟁을 당장 중지시키라.》는 외마디소리를 내지르고는 해외행각에 나섰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제집안팎에 랭소를 머금고 유유히 나들이를 떠나는 박근혜의 거동에 사람들이 무섭게 격노하고있다.

무려 24번이나 해외에 제바라나가는것으로 징벌의 황천길을 요리조리 피하며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고있는 박근혜의 이러한 행태는 세인의 시리치는 눈초리를 받고있다.

박근혜특유의 생존수단으로 되고있는 추악한 《보신술》의 허울을 벗겨 그 내막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분노한 민심의 화살을 막는 방패—해외도피

박근혜특유의 《보신술》에서 첫번째로 꼽을수 있는것은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남조선을 떠나는 해외도피수법이다.

민족사의 갈피에 악명높은 천하불망종으로 락인된 리명박역도가 력사의 락엽으로 사라진 다음 《차법화》를 떠들어대며 박근혜가 청와대문턱을 넘어선 이래 남조선에서는 력대 괴뢰통치배들의 뺨을 후려칠 정도로 사상초유의 특대형악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누구나 죄를 범하면 족쇄를 차고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상을 경악케 하는 만가지 악을 산생시킨 주범인 박근혜만은 그 어떤 처벌은 커녕 구속도, 재판도, 감옥행도 하지 않고 오또기 그대로 자빠지지 않고 무사태평히 있다.

그것은 박근혜에게 나름대로의 위기극복과 재난모면술이 있기때문이다.

그 비법인즉 앉아 스스로 화를 당하지 말고 그 자리를 멀리 떠나는것으로 화를 면해야 한다는것이다.

피지은 후 찾는 살구멍이 박근혜에게는 다름아닌 해외도피이다.

그 첫 서막은 청와대에 기어든지 얼마 안되던 2013년 《국정원》패거리들의 로골적인 《대선》개입사건이 공개되면서 가까스로 뒤집어쓴 《대통령》감투가 위태롭게 되자 야밤중에 출가도주하듯 비행기에 올라 뺑소니친것이다.

못된 버릇에 이골이 나면 재미든다더니 박근혜는 도피행각을 둘도 없는 위기탈출용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세계해난사에 특기할 최악의 《세월》호대참사가 발생했을 때 초보적인 재난구조대책은 커녕 하등의 관심도 돌리지 않아 애어린 학생들을 산채로 수장해버린 천인공노할 행위에 민심이 무섭게 폭발하자 급급히 해외로 뺑소니친것도 박근혜였으며 1년후에는 수장된 자식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유가족들의 피멍든 가슴을 란도질해대는 고약한 망발을 줴쳐대면서 즉시 해외행각에 오른것도 청와대악녀였다.

청와대를 밑뿌리채 뒤흔드는 대형사건이 남조선에서 일어날 때마다 박근혜의 해외행각도 병행되였다.

2014년 9월 황금만능의 약육강식과 양키식인간증오에 찌든 괴뢰군안에서 《사병구타살해사건》이 일어나 온 남녘땅의 분노한 화살이 군통수권자인 박근혜에게로 비발치고있을 때에는 카나다에로, 2015년 4월 청와대 부정비리와 결탁된 《성완종자살사건》이 남조선각계를 끓어번지는 활죽가마로 만들어놓았을 때에는 간특하게도 《엄정한 수사를 부탁한다.》고 뇌까려대고는 김포비행장으로 꼬리를 사리였다.

그리고 2015년 10월과 11월에는 《유신》독재와 동족대결을 노린 《국정교과서도입》과 관련하여 형세가 심상치 않게 번져지자 국제회의에 참가한답시고 해외에 나가 12일간이나 무료한 관광적바낭 빈둥거리며 여러 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수십만명이 반《정부》투쟁에 나선 민중총궐기대회의 심판대를 모면한바 있다.

박근혜는 강도가 범죄현장에서 시급히 탈출하는것이 상책이듯이 도피가 곧 장명부지라고 여기고있다.

이번에 《싸드》배치지가 발표된 다음날로 제꺽 비행기에 오른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마치 들판에 나와 벼와 강냉이를 쏠아대다가 위험을 느끼면 황급히 제 굴로 뺑소니치는 생쥐를 련상케 하는것이 박근혜의 상습적인 해외도피행각이라고 할수 있다.

분단사에 지울수 없는 죄악을 남긴 리명박역적도 격노한 남조선 각계층이 초불바다를 펼쳐놓고 반《정부》시위에 떨쳐나섰을 때 북악산에 울화 가슴을 조이며 움씨년스러운 밤시간을 보내면 보냈지 해외로는 말아날념을 못했다.

하긴 산송장취급을 당하는 리명박역도까지 얼마전 박근혜를 거들면서 제놈보다 더 무능하고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편잔을 했을 정도이니 가히 짐작할만 하다.

예로부터 불지각한 녀인이 나돌아치면 집안이 부산스럽고 물렁치한 녀자가 치마바람을 일구면 동네방네가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녀로 공인된 박근혜의 경우에야 더 말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다만 박근혜의 해외도피성체질에 대해서는 더 깊이 분석해보아야 한다.

박근혜의 해외도피는 《유신》독재자의 친미, 친일, 친외세움전자로 일관된 사대매국적인 기질을 선천적으로 유전받은데서 산생된 필연적귀결이다.

그가 누구든 박근혜라는 악명을 떠올리면 제바라간 나라들마다에서 괴이한 옷차림에 볼썽사나운 몰골을 해가지고 뜨내기외국말을 외워가며 마주한 대상이 새파랗든 늙다리든 개의치 않고 머리를 조아리던 민족적오욕의 쓰디쓴 꼬락서니부터 상기될것이다.

박근혜에게 있어서 남조선은 태줄을 묻은 고향이기에 앞서 신경과 짜증을 돋구어주는 《지겨운 타향》이였고 초보적인 생존권보장과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은 《다루기 힘든 골치거리》들이였으며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위하는 사람들은 《척결해야 할 종북세력》들이였다.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정신적안식처》였으며 오바마일당은 청와대입장권을 쥐여준 《권력의 매파》로서 절초보은의 대상이였다.

박근혜의 상습적인 해외도피행각은 무지무능과 무례무도로 굳어진 고질적인 악습에 기인되기도 하다.

그것은 박근혜의 집권 3년반이 《총체적무능과 실패》로 락인되고 력대 괴뢰통치배들중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혹평이 쏟아져나온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저지르고있는 죄행이 덧쌓일수록 엄습하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그럴수록 그를 피하기 위한 방책은 오직 줄행랑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박근혜에게 있어서 해외도피행각은 오늘 만사능통의 보신과 생존생리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절규하고있다.

《도대체 특대형악재들이 범람하는 이 땅에 과연 대통령이 있는가. 도피도주로 위기를 모면하지 말고 족쇄를 차고 민중의 준엄한 단두대에 목을 내대라.》

차례진 엄벌의 올가미를 피하는 상책—책임회피

박근혜의 《보신술》에서 두번째로 꼽을수 있는것은 남조선에서 온갖 사회적비리가 산생될 때마다 나 몰라라 하는 책임회피이다.

원래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상, 반인민적악정으로 유지되는 괴뢰권력층에서 세상을 경악케 하는 온갖 사회적비리가 산생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는 이루 헤아릴수 없는 특대형재난과 권력형부정부패사건, 불법비리가 폭발적으로 산생되어 세상의 쓰레기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청와대안주인의 독선과 불통, 오만과 방종에 의한것이다.

집권 첫해 《불법대선사건》으로 막을 연 이래 《문고리 3인방》과 《7인회》의 권력람용, 《세월》호대참사, 《정윤회국정개입사건》, 《성완종자살사건》, 《메르스사태》 등 어마어마한 사건들만 해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과 직접 련관된 주범인 박근혜가 불거진 모든 사건들의 책임에서 마치 기름바른 도마뱀처럼 쏙쏙 빠져나왔다는데 있다.

그것은 박근혜가 《나 몰라》식, 《도마뱀꼬리자르기》식, 《자폐기》식의 책임회피술을 능란하게 적용하였기때문이다.

청와대에 짜리를 틀고앉은 이후 박근혜는 형형색색의 권력형비리가 제기될 때마다 강도우에 날강도적으로 《엄정한 수사》, 《맹혹한 심판》을 떠들어대며 큰 일을 칠듯 야단법석해대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좀좀해지면 을야무야해버리거나 몇몇 졸사리들에게만 오라를 지우는 수법으로 요리조리 책임을 회피해왔다.

《세월》호대참사만 놓고보아도 괴뢰해양경찰청에는 부과된 임무를 망각했다고 삿대질해대고 괴뢰안전행정부에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앙앙불락해대고 괴뢰해양수산부에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도 나중에는 직접적인 처벌은 선장과 승무원, 청해진해운이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저기에 책임을 넘겨씌우고는 황급히 꼬리를 사리였다.

《세월》호참사를 빚어낸 기본원인이 제주도해군기지용건설자재를 과도하게 적신게 한 괴뢰당국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공개되였을 때에도 박근혜의 낯가죽은 변하지 않았다.

눈앞의 올가미를 피해 빠져나가는 능력도 기가 막히지만 카멜레온마냥 부단히 색깔을 변화시키며 위험에서 벗어나는 박근혜의 책임회피술은 《보신술》의 기본수단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특유의 《보신술》인 책임회피의 리면에는 어떤 더러운것이 깔려있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추악한 잔명부지를 위해 최측근심복들도 가차없이 《정권》유지의 제물로 던져버린 《유신》독재자의 생존방식이 놓여있다.

지금까지 각종 불법사건들에 련루되여 옥살이를 하거나 정계에서 버림을 받고 내쫓긴자들을 보면 대체로 박근혜의 립신양명에 버팀목이 되고 권력지반의 토방돌이 되는 등 허나새나 《고역》을 함께 치른 공통점을 가지고있는 자들이다.

일단 박근혜의 체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지게 하고 권력유지에 털끝만한 지장이라도 주는 기미를 보인다면 아무리 과거에 자기를 떠받들었다 해도 그 즉시 시퍼런 칼날을 휘둘러대는것이 박근혜의 기질이다.

이번에 해외로 도피한 박근혜를 대신하여 오물이 담긴 물병세례와 썩은 닭알벼락을 우산을 펴들고 막아대는 해괴한 광대극의 한 장면을 연출한 괴뢰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도 《싸드》문제가 더 크게 쟁점화되는 경우 기필코 박근혜의 《꼬리자르기》대상이 될것은 분명하다.

표리부동과 철면피로 일관된 책임회피의 리면에는 맹혈동물 박근혜의 소름끼치는 잔인성이 비껴있다.

편협과 편견, 편애가 체질화되여있는 박근혜는 독선과 독단, 독실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에게 무조건적인 찬양과 찬성, 찬동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온 상판이 그대로 독을 내뿜는 살모사가 되여 기광을 부리는 정신분렬증을 가지고있다.

괴뢰집권층은 물론 박근혜와 잠시잠간 대면해본 외국인들도 《눈과 귀는 막고 제 생각에 옴해있는 고집쟁이악녀》, 《언제 봐도 치째진 눈가로 독을 내뿜는 악인》, 《초보적인 현실인식도 부족한 저능아》라고 혀를 차고있는 정도이다.

박근혜의 책임회피는 온 남조선사회를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이 살판치는 인간말세의 란장판으로 만들어놓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격노하고있다.

《온갖 거짓이 이남땅을 통채로 휩쓸고있다.》, 《불법으로 장악한 대통령직이여서 불법만이 통하는 사회》, 《과연 박근혜의 언행에서 거짓과 진실은 어데서부터 어데까지인가.》, 《박근혜의 집권욕구를 충당할 제물이 이제 얼마나 더 필요한가.》

《유신》독재자의 추악한 되물림—동족대결

박근혜의 《보신술》에서 세번째로 꼽을수 있는것은 《정권》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광기를 부려대는 동족대결이다.

위기가 닥쳐오면 무작정 달아나고 무작정 회피하는 박근혜이지만 유독 메돼지처럼 피하지도 주춤거리지도 않고 정면으로 미욱하게 돌진하는것이 있다.

그 무모한 광기가 유감없이 발휘되는것은 다름아닌 동족대결이다.

사실 박근혜의 《보신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위기극복방책》은 풍랑처럼 겹쳐드는 다난다사한 그 모든 위기상황들을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모면하려 하는것이다.

2012년 괴뢰대통령선거전야에 평바닥에 곤두박히던 지지률을 《종북》이라는 강심제를 사용하여 반전시킨 류다른 경험을 가지고있는 박근혜에서 통치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 수법을 계속 활용해대는것이 버릇처럼 굳어져있다.

사람들이 박근혜의 집권 3년반기간 여론을 돌阜아대면 형형색색의 크고작은 《북소행》들이 례외없이 역도의 집권위기가 극도에 달하였을 때 제기되였다는 사실들에 주목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북도발》, 《북위협》, 《북소행》이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제철에 찾아온 〈북풍〉》, 《제집안일놓고 북 탓하는 만능〈정부〉》, 《전실장의 기중기도 대남로적 노리는 장거리로푸기》, 《〈1번〉은 청와대권력유지의 1번》, 《〈북소행〉이라는 결과발표 예견했더니만 아닐세라》라는 말들이 신조어로 류행되고 《인제는 그만들 속고 삽시다. 답답합니다. 제발…》이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통용되였겠는가.

그렇다면 박근혜가 이렇게 되여 선임자들도 무색할 정도로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광기를 부려대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동족모해와 동족비방, 동족중상, 동족적대, 동족대결만이 박근혜의 권력유지를 담보케 하는 최상의 《보신술》로 되기때문이다.

박근혜가 일으킨 《북풍》에 대해 간단히 렬거해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2013년 집권하자마자 《3.20해킹공격사건》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전산망대란》으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정부》의 허술한 《보안》과 부실한 《책임》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무작정 《북소행》으로 몰아붙였다가 남조선각계의 비발치는 야유와 조소를 받은것이나 2014년 5월 다가올 《6.4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날조하였다가 각계의 더 큰 비난을 자초한 사실, 2015년 6월 활성상태의 탄저균을 남조선에 비밀리에 들여온 사실이 공개되여 온 남조선땅이 쑤셔놓은 벌둥지처럼 되였을 때 생뚱같이 《북의 탄저균살포위협》설을 내돌렸다가 내외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실을 비롯하여 박근혜의 《북풍》조작책동은 실로 헤아릴수 없다.

무지무능한 통치력으로 발생하는 악재들에 《북도발》과 《북소행》이라는 간판을 붙여가지고 남조선인민들속에 동족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확산시키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대한 허무감을 극대화시켜보려는 박근혜와 그 패당의 책동은 실로 간악무도하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고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바라는 각계각층을 다짜고짜 《자유민주주의》에 반기를 든 《종북세력》으로 몰아대여 처형하는 현대판마녀사냥에 피를 물고 미쳐날뛰고 6.15통일시대의 소중한 《옥동자》이고 북남관계의 《마지막보루》로 공인된 개성공업지구마저 가차없이 짓뭉개버린것도 천추에 용납 못할 망동이였다.

지금 북남관계가 한줄기 의사소통수단도 없이 최악의 위기국면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박근혜의 동족대결책동때문이다.

원래 《반공》에 찌들고 민족분렬과 북침전쟁책동을 본업으로 삼고있는 박근혜였기에 현정세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그 어떤 발기도 《남남갈등을 노린 대남선전공세》라고 헐뜯어대고 민족공동의 의사가 반영된 통일방안도 《국제공조균렬을 노린 위장평화공세》라고 비방해나서고있는것이다.

《통일대박론》과 《드레즈덴선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한 보기조차 낯설고 듣기조차 거북한 박근혜의 《통일방안》들은 그대로 분렬방안, 대결방안일따름이다.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것으로 살길을 찾아보려는 박근혜로 하여 초래된 위기는 더는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저주에 차 울부짖고있다.

《박근혜는 무모한 도발과 파멸의 진원지》, 《국민은 치마두른 대결광때문에 살아갈수가 없다.》, 《민족의 암적존재인 박근혜를 도려내자.》

상습적인 해외도피와 파렴치한 책임회피, 극악무도한 동족대결로 일관된 박근혜특유의 더러운 《보신술》은 한마디로 이미 불운에 비명횡사한 독재자의 전철을 답습하는 《유신》의 되풀림이다.

더러운 잔명부지를 위한 박근혜의 《보신술》에 의해 온 남녘땅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 사람 못살 인간동토대, 패륜악덕의 란무장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해외도피, 책임회피, 동족대결로 특징지어지는 박근혜의 《보신술》은 더이상 통할수 없다.

흐르는 시간은 박근혜의 더러운 명줄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문 흥 렴

온 겨레는 거족적투쟁으로 박근혜역적패당의 매국배족적인 《싸드》배치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싸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패당의 매국배족적책동을 단죄규탄하는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괴뢰패당의 《싸드》배치결정을 《대재앙을 불아오는 망동》, 《미국의 리익만을 절대시한 매국결정》 등으로 련일 성토하면서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박근혜를 《제2의 을사오적》으로 락인하고 그 배치를 결사반대해나서고있다.

특히 《싸드》배치지로 결정된 경상북도 성주군의 주민들은 성주에 나타난 괴뢰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닭알과 물병세례를 안기면서 7시간동안이나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성주《싸드》배치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삭발과 초불집회, 서울롱성투쟁 등 련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의 대중적투쟁에 당황망조한 박근혜패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니 뭐니 하며 때일같이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가 하면 미국과 작당하여 괌도의 《싸드》기지를 공개하는 놀음을 벌리는 등 격노한 민심을 눅잦히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대중적인 《싸드》배치반대투쟁은 동족대결과 친미사대, 매국배족에 환장하여 삼천리강토와 온 민족을 날강도 미제의 핵전쟁희생물로 서슴없이 내맡기고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랭전을 불러오는 박근혜패당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오와 분노의 폭발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규탄하고있는것처럼 괴뢰패당이 남조선에 기어이 《싸드》를 배치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흡수통일》야망을 이루어보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인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에 추종하여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서슴없이 내맡기는 극악한 친미매국역적행위이다.

지금 미국과 괴뢰패당은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그 누구의 《핵 및 미싸일위협》때문이라고 광고하고있지만 그것은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략적우위를 차지하고 임의의 순간에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에 핵선제공격을 가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흉악한 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서푼짜리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전쟁발원지, 참혹한 핵전쟁터로 전락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섬겨바친 박근혜패당의 친미사대적망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배족적행위로 락인하고 전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규탄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는 박근혜패당의 《싸드》배치망동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은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적인 핵전초기지, 핵전쟁발원지로 철저히 전락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핵전쟁위기는 더욱 현실적인 위험으로 눈앞에 박두하였다.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배치로 남조선인민들이 입게 될 엄중한 인명 및 환경피해와 막대한 경제적부담 또한 이루 헤아릴수 없다.

남조선은 미제침략군에게 《싸드》부지와 시설물제공은 물론 건설비, 군수지원비, 운용비용 등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혈세를 섬겨바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부담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이 들쓰게 되었다.

군사적실용성은 물론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미국내에서조차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있는 《싸드》는 강력한 전자기파와 소음공해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주위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백해무익한 괴물로 배척당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싸드》배치로 인한 《피해는 없다.》느니, 《괴담류포》니 하며 저들의 추악한 사대매국적정체를 어떻게 하나 가리우고 내외의 규탄여론을 모면해보려고 철면피한 광대놀음에 더욱 매달리고있다.

박근혜역도는 21일에도 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열고 《북의 위협》이니, 《최선의 방도》니 뭐니 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저들의 《싸드》배치를 합리화하고 《불순세력》을 운운하며 남조선 각계의 정의의 투쟁을 탄압할 흉악한 기도까지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제반 사실은 박근혜패당이야말로 북과 남을 가림없이 온 겨레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 참혹한 재앙만을 불아오는 천하의 역적무리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암적존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역도가 미국상전에게 민족의 리익을 장그리 섬겨바친 대가로 파멸에 처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온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덧쌓은것으로 하여 종국적멸망을 면할수 없다.

박근혜역도는 《싸드》와 같은 고철덩어리로 우리의 정의의 불소나기를 조금이라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막고 미제의 침략적인 살인장비들과 기지들을 철폐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은 만고역적 박근혜패당의 범죄적인 《싸드》배치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7월 22일
평 양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단체
남조선괴뢰패당의 반인륜적범죄행위 단죄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 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청년소조가 우리 공화국공민들에 대한 남조선괴뢰패당의 집단유인랍치만행을 규탄하여 18일 오스트리아주재 남조선괴뢰대사관에 항의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들은 남조선당국의 비인간적인 집단유인랍치만행을 준렬히 규탄하며 하루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려보낼것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생사여부와 그들을 직접 보고싶어하는 부모들의 가장 초보적인 소원까지도 외면하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륜적인 처사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우리들은 남조선당국이 집단유인랍치만행에 대하여 국제사회앞에 사죄하고 조선공민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낼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 *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가 우리 공화국공민들에 대한 남조선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집단유인랍치만행을 규탄하여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공민들을 집단유인랍치한 남조선괴뢰들의 반인륜적처사를 강력히 단죄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조선공민들에 대한 유인랍치만행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라고 성명은 까밝혔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아직까지도 조선공민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인권리사회가 위선과 이중기준에 매여달리고있다고 비난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유엔인권리사회 제32차회의가 제네바에서 페막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공보에서 인권리사회의 불공평한 활동에 대해 비평하였다.

공보는 유엔인권리사회가 많은 점에서 자기의 구조적잠재력을 잃고 정치화의 실천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유엔인권리사회는 지난 10년동안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였으며 정치화의 부당한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바로 이 정치화때문에 이전 유엔인권위원회가 해산되였던것이다.

유엔인권리사회가 공개적인 대립을 조성하고 정세국면을 복잡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활용되고있으며 위선과 이중기준에 매여달리는것으로 하여 인권의 리념자체가 신용을 잃고있다. 따라서 인권리사회에서 편견적인 비난을 받고있는 정부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는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러 나라들 협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19일 두 나라를 련결하는 고속철길을 부설할데 관한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17일 앙골라와 콩고는 경찰일군양성과 안전보장, 정보교환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다.

알제리와 인도네시아가 18일 광업부문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이보다 앞서 17일 이란과 아르메니아는 반부패투쟁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61118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편집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